

甲骨文과 殷文化 略論

孔 在 錫*

前 言

中國 殷代(B.C. 1384~1111)인들이 使用했던 甲骨文이 河南省 安陽縣 小屯村에서 出現되어 한때 世界學界의 耳目이 集中된지도 70餘年이 흘렀다. 그동안 이 甲骨文 研究家들은 中國古代文化의 새로운 探究에 있어서 古史의 新證, 古文字의 考釋, 文例研究, 經典의 修正과 補充, 社會制度의 研究等等 各方面에 걸쳐서 많은 成果와 啓示를 주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中國古代史를 研究하거나 古文字學, 先秦文學思想을 研究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 殷代의 直接資料인 甲骨文을 認識하고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上古代의 歷史나 思想을 研究할 때 後代 記錄들의 信憑性이 없는 荒論들을 糾正하자면 이제는 從來 典籍의 註釋보다 먼저 이 甲骨文을 理解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謬謬를 알 수가 없게 된 점들이 많은 것이다. 예를 든다면 歷史書의 最初의 記錄인 史記와 先秦文學 思想의 代表的인 三經等の 錯誤는 모두가 이 古代의 實證史料들을 利用하여 修正 補充하여 그 眞面目을 理解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甲骨文 研究家들의 努力으로 지금은 比較的 쉽게 甲骨文을 利用하여 中國의 古代文化를 理解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른 것이다. 이제 우리들도 이러한 資料들을 利用하여 中國古代文化를 올바르게 理解하고 아울러 上古時代의 우리 文化와의 關係도 넉넉히 비교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中國文化의 理解를 오늘날 最古의 實證的인 資料로부터 理解 하여 그 系統的인 變遷의 過程을 올바르게 考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여겨 여기에 간단히 甲骨文을 소개하고 注意를 갖고자 하는 바이다.

1. 甲骨文의 發見과 簡介

甲骨文이란 中國 淸나라 光緒 25年(1899)에 發見된 中國上古時代 殷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講師(中國文學)

人들이 使用한 最古文字인 것이다. 이 甲骨은 淸 光緒年間까지 近 3千餘年 동안 地下에 埋藏되어 있어 사람들의 注意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甲骨文이란 名稱은 새로 생긴 名詞가 되었고 그 命名이 되기 까저에는 各各 다른 여러 名稱들이 있어 이것이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달랐던 것이다. 卽 龜甲文, 龜版文, 龜文, 甲文, 貞卜文字, 殷虛文字 等等 數種으로 불리워지고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여러명칭들 중에서 甲骨文이라 稱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고 公認되고 있는것이다⁽¹⁾.

甲骨文은 甲과 骨로 區分되고 甲은 龜甲이고 骨은 여러 짐승들의 뼈가 있으나 그 主가 되는 것은 소뼈(牛骨)인 것이다. 甲骨文이란 이러한 甲과 骨版에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이고 흑은 붓으로 쓴 것도 있으며 또 글자를 새긴 다음 珠墨을 칠해 넣은 것이 있다.

甲骨文은 殷人들이 그들의 習慣에 따라 疑難을 푸는 方法으로 占을 처 祈願을 물은 것이므로 占을 치는데 龜나 牛의 甲骨版을 쓴 것이고 그 版上에 占卜한 事項을 記錄한 것이다. 特히 이러한 行事는 一般이 하는 것이 아니라 國王이 行하였으며 國王은 自身の 모든 일에 대하여 먼저 점을 쳐서 판단이 난 다음 施行을 하였던 것이다. 대략 그 점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祖上의 祭祀, 外族의 征伐, 自身の 田游, 往來行止, 旬, 夕日, 天象, 年歲, 疾病, 生死, 生育, 夢, 營建, 等 其他 諸事에 關하여 占卜을 하여 吉凶을 判斷하였던 것이다⁽²⁾. 이러한 國王의 行事에 關한 事情을 甲骨上에 記錄 하여 놓은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當代의 가장 實證的인 資料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信史性이 있는 資料를 利用하여 中國 上古文化를 鳥瞰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의 上古文化를 理解하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史料들이 出現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바도 있는 것이다.

(1) 董作賓：甲骨學六十年，p. 2—5. 藝文，1965.

(2) 張秉權：甲骨文的發現與骨卜習慣的考證，史語所集刊 37本下 p. 857, 1967

甲骨文이 最初로 發見된 곳은 中國의 河南省 安陽縣 小屯村이다. 이 곳 安陽은 殷代의 都邑地로 盤庚이후 帝辛까지 273年間の 首都였다. 이 小屯村은 北으로 洹河가 流려있는 平坦한 곳이며 이곳을 殷虛라 부르고 여기서 늘 甲骨가 出土되었던 것이다. 甲骨는 隋唐時代에서 부터 出土된 것이다⁽³⁾. 그 當時에는 이것이 殷代의 寶物임을 알지 못하였고 별로 注意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淸나라 光緒年間に 들어와 小屯村人들은 자주 甲骨가 出土되어 농사를 짓는데 不便하므로 주어서 버렸던 것이다. 或者는 이 甲骨를 龍骨이라 하여 藥材로 쓰기도 하였으니 刀尖藥에 이 龍骨이 쓰였던 것이다. 그때 이 小屯村에는 李成이라고 하는 한 理髮師가 있었으니 그는 여가를 利用하여 이 龍骨을 藥房에 팔아 副業으로 여려해 동안 해온 것이다. 藥房에서는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甲骨를 비싸게 샀으므로 사람들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은 갈아서 팔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安陽에는 藥材商들이 많았고 이들 藥房을 通하여 甲骨는 北京等地에 까지 퍼졌다. 北京의 菜市口에 있던 達仁堂이란 藥房에서 그 당시 北京의 國子監祭酒로 있던 王懿榮(1845~1900)이 病으로 그 藥房에서 龍骨을 샀던 것이다. 그는 이 龍骨에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놀라 이것은 반드시 古代文字라고 여겨 바로 山東의 골동상인 范維卿等을 시켜 安陽으로 보내어 甲骨를 蒐集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王懿榮이 甲骨上에서 글자를 發見한 것이 光緒 25年(1899)가을의 일인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天津에 살던 王襄도 골동상인들이 甲骨를 사는 것을 보고 그의 친척인 孟定生에게 말하니 바로 古代文字가 새겨진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⁴⁾. 그러나 王懿榮은 당시 北京의 國子監祭酒(國立大總長格)의 자리에 있었고 원래 骨董品鑑定에 造詣가 있었고 金石文을 考訂하였던 관계로 甲骨上의 刻劃이 古文字임을 바로 알게된 것이다. 그

(3) 董作賓：前揭書，p. 18

(4) 王 襄：簞室殷契類纂序，1920

리므로 그를 甲骨文發見의 最初者로 公認하고 있는 것이다. 王懿榮에 의하여 甲骨文이 問世되자 많은 中國 國內外學者들과 骨董家들의 耳目이 安陽으로 集中되어 서로 收藏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마침 義和團事件으로 王氏가 殉死하게 되니 그가 蒐集하였던 甲骨은 劉鶚⁽⁵⁾ (1850 ~ ?)에게 넘어 갔고 劉鶚이 流死하자 다시 그의 甲骨은 羅振玉 福開森等に 收藏이 되고 一部는 天津新學院에 寄贈이 되었다. 이와동시에 天津의 王襄 孟定生 등도 甲骨을 열심히 蒐集하였으니 약 5,000 여편 이나 되었다고 한다.

1899年 甲骨이 發見되어 바로 그 發掘作業이 이루어 졌으니 이 發掘工作을 私人發掘과 公家發掘의 두가지로 區分하고 있는 것이다. 私人發掘期는 1899年에서 民國 17年 1928年까지 이고 이 期間 9 차례의 발굴이 있었다. 이때는 대개가 骨董商人들이 蒐集에 힘을 썼고 學術的인 研究보다 商品으로 돈을 버는데 더 興味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約 八萬여편의 甲骨이 出土되었고 이 甲骨이 中國 內外로 흩어져 나갔으니 外國人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 이때이며, 美國의 Frank H. Chalfant (方法斂) 캐나다 선교사 James M. Menzies (明義士) 英國의 Samuel Couling (考齡), 日本의 林泰輔等이 많이 收藏하게 되었던 것이고 中國에서는 劉鶚 羅振玉 劉體智 등이 많이 收藏하였던 것이다. 이 一段의 時期가 지나고 民國 17年(1928) 10月에 國立中央研究院에서 殷虛發掘團이 組織되어 公的인 發掘作業이 着手되어 傅斯年의 努力과 董作賓, 李濟等의 指導로 科學的인 發掘作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殷代文化의 實際的인 研究와 考古學的인 作業이 發端된 것이다. 이 後期發掘의 結果 學術的 價値를 豊富히 주게 되었으나 이 작업이 中日戰爭의 발발(1937)로 完結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中央研究院의 發掘로 殷虛

(5) 劉鶚(1850—?) : 字 鐵雲. 丹徒人. 老殘遊記의 著者. 1903年 鐵雲藏龜라고 하는 甲骨文 石印本을 내니 이것이 最初의 甲骨文字書가 되었다.

遺址는 거의 完全히 發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37年 以後의 오늘날까지 發掘에서는 特異한 發掘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甲骨文은 많은 學者들이 文字의 考釋으로부터 歷史, 社會, 文化 全般에 關한 研究에 從事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古代史, 古文字學, 考古學, 人類學 等 上古文化 研究에 活目할 功헌을 하여오고 있는 것이다. 初期의 甲骨學研究에는 孫詒讓, 羅振玉, 王國維, 郭沫若 등의 貢獻이 至大하고 이어서 董作賓, 唐蘭, 陳夢家 胡厚宣 等の 貢績이 大端한 것이다. 特히 董作賓先生은 殷虛發掘로 부터 平生을 甲骨文研究에 從事하여 不朽의 業績을 남겼으니 甲骨文中 貞人의 發見⁽⁶⁾과, 斷代分期研究⁽⁷⁾, 殷曆의 研究⁽⁸⁾等 甲骨學의 基盤을 세우고 빛을 내게 한 것이다.

現今 世界的으로 甲骨學에 從事한 學者들은 近 200餘名이나 있고 지금까지의 論著가 近 1,000餘篇에 달하고 있다⁽⁹⁾. 現在 臺灣에 있는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가 殷虛에서 發掘한 資料를 全部 가지고 와서 董作賓(1964.逝)先生을 中心으로 屈萬里, 李孝定, 張秉權, 金祥恆先生等 文字考釋, 綴合, 摹寫, 複原工作을 하고 있고 大陸에서도 繼續하여 唐蘭, 陳夢家, 胡厚宣, 楊樹達等이 考釋과 商史에 關하여 努力하였고, 日本에서는 貝塚茂樹, 白川靜, 島邦男 等이 活潑한 研究를 하고 있다. 歐美學者로는 캐나다의 James Menzies. (故人) Frank H. Chalfant(美) H. E. Gibson. (英) L.C. Hopkins. H.G. Greel(美) Samuel Couling(英) 等이 研究에 從事하였다.

現在 우리가 알수 있는 甲骨文字數를 본다면 全體의 單字數를 3,000字

(6) 董作賓：大龜版考釋. 安陽發掘報告第三期 1931. 6.

(7) 董作賓：甲骨文斷代研究例. 1933. 1.

(8) 董作賓：殷曆譜. 1945. 4.

(9) 董作賓 胡厚宣：甲骨年表.

董作賓 黃然偉：續甲骨年表.

內外로 보고 認知할 수 있는 字가 1500 字內, 아직 未知의 字가 1500 以上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大體로 殷虛에서 出土된 甲骨片數는 約 10 萬片으로 보고 있으며 그 統計數字는 正確히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所藏된 甲骨는 서울大 博物館에 大牛胛骨片과 殘片 5 片이 있어 大胛骨 2 片은 이미 董作賓先生의 考釋으로 그 重要的 資料性이 널리 알려졌으며⁽¹⁰⁾ 서울大所藏甲骨에 關하여서는 다음 機會에 論하고자 한다.

2. 甲骨占卜과 卜辭

中國에서 占卜의 習慣이 언제부터 始作된 것인지 아직 未知의 事實이다. 甲骨文이 發見되고 考古學의 發展으로 占卜法에 關한 考證도 그 成果를 얻게 되었다. 甲骨以前의 占卜으로 卜骨을 使用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으니 民國 19 年(1930 年) 山東省 龍山鎮 城子崖의 發掘結果 黑陶文化層을 發見하고 그곳에서 卜骨片을 얻었던 것이다. 이때 卜骨片 16 片은 文字는 없고 直接 骨面上에 灼兆한 것이 었다. 여기서 卜骨習慣이 黑陶文化期에 생긴 것이라 推測을 한 것이다⁽¹¹⁾. 大體로 人類가 占을 치는 理由는 疑問과 難事를 解決하기 위한 하나의 祈願을 묻는 것이니 이러한 習慣은 人類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殷人들도 그 前代의 習慣을 이어 받아 占卜이 盛行하였던 것이며 占卜의 資料로 甲骨과 牛骨등을 썼던 것이다. 殷人들은 先代의 骨卜에서 龜甲을 利用하게 되었으니 占卜方法도 그만큼 進展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殷人들의 占卜은 國王이 國家의 重要的 行事로 諸殷事를 問卜할 정도로 大盛行을 하였던 것이다. 이 甲骨文에 나타난 殷人들의 占卜方

(10) 董作賓：漢城大學所藏大甲骨刻辭考釋，史語所集刊，第28，1957，5.

(11) 李齊：城子崖(中國考古報告集之一)序

法을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占卜에 쓰여진 資料로는 龜와 骨을 썼다. 龜의 種類로는 安陽田龜, 中國膠龜, 地龜, 大龜(現 마라야반도 부근에서 出産) 등의 背甲과 腹甲을 썼고 骨類로는 牛, 馬, 羊, 犬, 豬, 鹿, 人頭骨, 象, 鯨骨 등을 썼다. 이러한 骨中에는 牛胛骨을 많이 쓴 것이다. 甲骨文에는 이러한 資料들의 收入關係가 보이니;

「/」有來自南挈龜? (乙編 6670)

甲辰卜: 設貞, 奚來白馬? 王固曰: 吉, 其來?

甲辰卜: 設貞, 奚不其來白馬五? (丙編 157)

早來犬?

早來馬? (乙編 5305)

崔入龜五白. (乙編 4519)

等 많은 占卜資料의 入貢記錄이 보이고 또한 各地方에서 들어 왔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¹²⁾. 그리고 殷人들은 甲骨의 保管에도 철저하였고 專門적으로 이를 맡아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甲骨의 數量이 많고 占卜의 必要에 따라 即時 使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예를 보면 殷末 帝辛時代 人方을 征伐하기 위하여 近一年을 出征하였는데 그때 占卜할 甲骨을 모두 가지고 다니며 使用하였고, 殷虛發掘中 後期の 第十五次 發掘의 H. 127 坑에 甲骨무더기와 함께 꺼꾸로 묻힌 人骨이 하나 있어 이것이 甲骨의 保管人으로 殉葬된 것이라 보고 있다⁽¹³⁾.

占을 치기前에 甲骨을 다듬어야 하는데 殷人들은 여러가지 工具를 써서 甲骨을 다듬었다. 톱, 끌 등의 연장을 써서 자르고 평평하게 깎고 둥글게 만들고 갈고 구멍을 파고 뚫고 하였으니 그 使用한 기구들이 발달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들은 점을 치는데 어떻게 하면 卜兆를 쉽게 낼

(12) 張秉權: 前揭論文. p. 852.

(13) 董作賓: 前揭書. p. 43.

수 있을까苦心한 것이다. 그래서 甲骨面을 잘 다듬었던 것이다. 이것은 城子崖에서 얻은 卜骨이 直接 骨面上에 灼兆한 것에 比하면 많은 進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即 殷人들은 甲骨面에 凹穴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後世에 鑽鑿이라고 한 것이다. 이 구멍을 만드는 工作이 아주 精巧하였으며 이러한 凹穴은 左右로 對稱을 이루었고 그 排列이 整齊되어 있는 것이다. 穴의 深度는 各各 다르지만 아주 얇게 까지 파놓아 1~2 mm 까지 판 것이 많다. 그리고 한 甲骨版에 여러개의 凹穴을 뚫으니 그 數는 一定하지 않다. 적은 것은 몇개로 부터 많은것은 100개가 넘는 것도 있다. 이러한 凹穴에 關하여서는 後代의 記錄⁽¹⁴⁾들에도 보이나 다 根據가 있는 說이라 할 수 있다. 史記의 龜策列傳의 記錄은 殷代의 卜法과는 差異點도 많이 있지만 附合되는 점도 많다.⁽¹⁵⁾

準備가 完整된 甲骨를 가지고 그다음 問卜을 하게 되는데 即 國王이나 貞人이 그들의 疑問에 關하여 말을 하는 것이니 이것을 「命龜」라고 하는 것이다. 即 問卜을 하고 그 凹穴에다 灼火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問卜의 차례를 적어 놓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 「記兆序數」라고 하는 것으로 한 문제에 대하여 몇 번 반복하여 問卜한 것을 一, 二, 三, 四 등의 수자로 적은 것이다.

灼火하여 卜兆가 생기고 그 卜兆에 따라 吉兆를 「記兆述語」인 上吉, 小吉, 大吉, 弘吉 등으로 表示하고, 問卜이 끝나면 그 問卜事情을 簡略히 記載하였으니 이것을 우리는 卜辭라 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殷人들의 問卜하는 語氣는 肯定, 否定의 方法을 썼으니 한 事項에 대하여 두 가지 물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完整한 卜辭는 四分되니 序辭, 命辭, 占辭, 驗辭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卜辭는 이 4가지

(14) 荀子王命篇：鑽龜陳卦。莊子外物篇：七十二鑽而無遺策。

(15) 沈啓无·朱耘菴：龜卜通攷，國立華北編譯館館刊 No1. 1942.
董作賓：商代龜卜之推測，安陽發掘報告第一期，1929.

部分을 다 記하고 있지 못하고 省略한 것이 많다.

問卜을 하는 貞人은 大體로 그 當時의 貴族階級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世襲된 職位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方伯 首令 등이 많았다. 國王을 中心한 左右의 臣下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問卜이 始作된 다음 作龜(灼兆)가 始作되는 것이니 불을 다루는 專門的인 人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때 불은 오늘날 숯불같은 것으로 凹穴에 灼을 한 것이다 불을 대는 순간 卜兆가 생기니 卜하는 소리와 卜자의 兆紋이 나고 이것을 보고 吉凶을 判斷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卜兆를 보고 吉凶의 判斷이 어떻게 決定된 것인가 하는 점을 알기란 아직 큰 未知의 問題인 것이다.

이렇게 吉凶이 判斷된 다음 卜辭를 刻劃한 것이니 대개는 칼로 새긴 것이고 흑 붓으로 쓴 것도 있다. 刻字한 다음에 珠墨으로 칠을 해 놓았던 것이다.

甲骨文中에서 가장 重要的한 것이 卜辭임은 두 말할 必要도 없다. 그러나 이 卜辭란 어떠한 것인가 이 점을 우리는 明白히 알아야 할 것이다. 簡單히 말하여 卜辭는 占卜의 記錄이며 이 記錄이 極히 簡略한 文字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卜辭를 우리가 理解하자면 먼저 卜辭의 標準形式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卜辭의 標準形式은 4部分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4가지 部分은 1. 序辭 2. 命辭 3. 占辭 4. 驗辭인 것이다. 例를 들면 : ⁽¹⁶⁾

①甲申卜, 設貞 : ②(婦)好媿妁? ③王占曰 : 「其惟丁媿, 妁, 其惟庚妁, 弘吉」, ④三旬有一日甲寅媿, 不妁, 惟女。

①甲申卜, 設貞 : ②「婦好媿, 妁」? ④三旬有一日甲寅媿身, 不妁, 惟女。

(16) 張秉權 : 殷虛文字丙編, 247版, 1957.

- ① 序辭 : 占卜의 時期와 問卜人物을 叙述한 것이다. 때로는 이 序辭部分이 甲骨의 反面에 따로 새겨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時期와 問卜한 사람이 省略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全部 省略된 것도 있다.
- ② 命辭 : 問卜 事情을 記한 것이다. 어떤 경우는 전부 省略하기도 하고 아주 簡略히 記述하고 있다.
- ③ 占辭 : 問卜이 끝나 占兆한 結果를 적은 것으로 或은 命辭와 연결된 경우도 있고 通常 甲骨의 反面에 記載된 것이 많다. 大部分의 卜辭들이 이 占辭를 記하고 있지 않다.
- ④ 驗辭 : 占卜이 끝난 다음 그 結果 占卜의 應驗與否를 記述한 것이다. 往往히 占辭나 命辭 다음에 記하고 있고 보통 이들의 反面의 자리에 記錄된다. 일반적으로 記錄된 것이 많지 않다.

以上の 標準型의 卜辭는 흔하지 않다. 大概의 卜辭는 省略된 것이 많고 또 記載하지 않은 것이 많다. 그리고 그 順序가 차례로 적히는 것이 아니고 序辭와 命辭는 前面에 있고 占辭와 驗辭는 그 反面에 있기도 하다. 또 記法이 各各 다르다. 그러나 하나의 原則이 있으니 卜辭는 언제나 그에 해당되는 卜兆나 灼穴 가까이 記載된 것이다.

또 한가지 卜辭中 注意할 것은 一組의 「對貞卜辭」인 것이다. 이것은 한 事件에 관하여 問卜을 할 때 肯定과 否定의 語氣로 占卜을 한 것이니 이 二種의 型式을 「對貞卜辭」라 하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省略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一條의 卜辭를 理解할 때 반드시 甲骨의 正反面을 보아야 하고 그 對貞卜辭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對貞卜辭는 甲骨의 左右로 對稱되는 部分에 記錄된 것이 많고 上下로 나뉜 것도 있다. 또 우리는 한 事件에 關하여 여러번 問卜한 것을 볼 수 있으니 對貞卜辭가 한 事件에 關하여 重複되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을 「成套卜辭」라 하니 여기서는 卜兆의 序數가 重要한 작용을 한다고 하겠다. 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번 問卜을 한 것이니 이러한 成套卜辭는 흔하지는 않

으나 卜辭의 省略과 簡略한 記述을 한 까닭을 알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되는 것이다. 즉 처음 卜辭보다 나중의 卜辭는 많이 省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同一한 事件에 관하여 연속 問卜을 한 것이므로 刻劃上 不必要한 점을 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① 庚子卜，爭貞：西史旨亡禍古？

庚子卜，爭貞：西史旨其有禍？

② 貞：西史旨亡禍古？二

旨其有禍？二

③ 貞：旨亡禍？三

旨其有禍？三上吉

④ 旨亡禍？四

其有禍四不吝

⑤ 旨亡禍？五不吝

有其禍？五 (丙編 第5版)⁽¹⁷⁾

이것은 한 版上에 10條의 卜辭로 問卜한 것으로 그 事情은 同一한 것이다.

우리는 以上에서 殷代의 直接史料인 甲骨卜辭를 어떻게 잘 理解할 가 하는 問題를 보았다. 其外에도 考釋의 誤謬殘缺部分等 許多한 注意를 하여 完全한 理解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甲骨文을 直接 다룬다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17) 張秉權：上揚書 考釋 p. 21.

3. 甲骨文과 古文字學

甲骨文이 現存하는 中國最古의 文字로 發見된 이래 中國古文字學 研究에 있어 多大한 成果를 올리고 있으니 殷代文字와 그 以後의 文字 사이의 連繫問題에 많은 啓示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甲骨文과 金文과의 關係도 많은 進展을 보게 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甲骨문을 中心하여 그 以前의 文字도 推論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甲骨문을 읽어 나가는데 큰 困難을 解消하였으니 이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努力과 苦心한 研究 結果라 아니 할 수 없다. 一般的으로 甲骨문을 쉽게 다루게 된 結果 中國學術上 큰 貢獻을 하게 되었으니 이는 從來의 文字 解釋에 많은 修正을 加하게 되어 그 結果 中國學術思想史의 理解에도 큰 變化를 불러 일으키게 된것이라 보겠다. 例를 들면 說文에 依據하여 解釋하여 오던 王·皇·帝·字等은 漢代以後 中國政治思想의 核心을 이루어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자들을 甲骨문을 通하여 볼때 從來의 解釋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또한 戰國時代 百家가 爭鳴하여 많은 思想을 代表하는 抽象名詞들이 나왔으나 仁·愛·性 等の 原型을 아직 甲骨文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觀念들이 中國의 周代에 萌芽된 것인가 或은 殷代에 始作된 것인가 많은 興味있는 問題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甲骨文과 中國의 傳統的인 文字構成理論과의 關係가 어떠한가 하는 問題는 아직 未解決의 處地에 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甲骨문을 中心하여 文字의 正確한 考釋, 字體의 變化, 金文과의 比較研究, 文字構成理論, 演化過程, 通用字數의 範圍等은 모두가 中國古文字學에 있어서 必要로 하는 대상인 것이다. 다음에서 몇가지 간략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中國文字의 起源問題

事物의 起源을 論하는 問題는 참으로 難題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中國文字의 起源을 論하는 일도 同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但 가장 믿을 수 있는 實證的인 資料를 土臺로 하여 一種의 우리가 思考할 수 있는 推測을 말하는 것에 不過하다. 이런 問題는 無效한 일이라 여겨지지만, 그러나 從來의 中國의 典籍에 記載된 信憑性이 없는 說들을 再檢討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아울러 歷史上의 誤謬들을 是正해가는데 一助가 된다고 할수있는 것이다

1899年 甲骨文이 發見되어 이것이 殷代人들이 使用한 文字임이 밝혀지기 前에 中國文字의 創造者로는 蒼頡이 그 代表가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러한 說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¹⁸⁾. 殷代의 實證資料를 利用하여 中國文字의 起原은 論한 것으로 우리는 두사람을 들 수 있으니 唐蘭과 董作賓先生을 말할 수있다. 唐蘭은 일찌기 그의 古文字學導論 : 中國文字의起原에서 「我們在文字學的立場上, 假定中國的象形文字, 至少已有一萬年以上的歷史, 象形象意文字的完備, 至遲也在五・六千年以前, 而形聲文字的發創, 至遲在三千五百年前, 這種假定, 決不是夸飾。」이라 하였다.⁽¹⁹⁾ 그는 確實한 根據資料를 示提하지는 않았으나 殷代 甲骨文에 形聲文字가 興起되고 있음에 緣由하여 以上과 같은 推測을 하였다.

董作賓先生은 甲骨文研究에 劃期的인 功을 쌓았고 이 어려운 中國文字의 起源을 論한 두篇의 論文에서 中國文字의 起源을 新石器時代 農業이 發達한 以後로 보았다. 지금으로 부터 約 4800年 以前으로 본 것이다.⁽²⁰⁾ 以上の 觀點은 象形文字로 부터 甲骨文에 이르기 까지의 變化過

(18) 丁 山 : 文字起源考. 1927. 10.

(19) 唐 蘭 : 古文字學導論. p. 28-29. 1934.

(20) 董作賓 : 從麼些文看甲骨文. 大陸雜誌. 3卷 1期

董作賓 : 中國文字의起原, 大陸誌 5卷 10期(車柱環 教授 譯載 思想界 3卷5號, 1955, 5.)

程을 다른 象形과 圖畫文字인 麼些文字를 比較하여 理致에 맞는 推測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中國文字理論(六書說)과 甲骨文字

甲骨文字를 利用하여 文字의 考釋과 古代의 歷史, 社會制度等 一般文化의 認識에 있어서 많은 業績을 올려 왔다. 그러나 中國文字理論인 六書說을 利用하여 甲骨文字를 研究한 例는 극히 드물다. 最近 李孝定 教授의 努力으로 西漢末 東漢初에 始作된 文字理論을 甲骨文字에 까지 對比시켜 甲骨文字가 中國文字의 演化過程中에 찾아하고 있는 位置를 探究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自己가 著한 甲骨文集釋의 可識字 1,226 字를 六書의 分類인 象形·指事·會意·假借·形聲·轉注에 分類하여 統計를 내어 놓고 있다. 몇가지 重要한 問題가 提起되었으니,

1. 甲骨文字中에서 轉注字가 없다는 것.
2. 甲骨文字中에는 假借字의 比重이 크다는 점.
3. 假借한 글자는 모두 象形·會意·指事字인점 形聲字를 假借한것이 없다는 점.
4. 形聲字가 많이 甲骨文字 後期에 增加되고 있다는 점.

以上の 現象은 中國文字의 演變中 甲骨文字가 어떠한 變化를 하고 있는 가를 如實히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中國文字의 演化過程을 圖畫→象形→指事·會意→假借→形聲의 段階로 發展을 하여 온 것이라 본 것이다⁽²¹⁾.

總括的으로 殷代에 形聲文字가 興起되고 있어 圖畫로 부터 殷代까지 文字變化의 時期가 상당히 오랜 세월을 必要로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時期가 確定될 수는 없으나 董作賓先生이나 唐蘭先生이

(21) 李孝定：從六書的觀點看甲骨文字，南洋大學報，2輯，1970.

말한 것이 그렇게 虛無한 空論이 아님을 알수있는 것이다.

③ 文字考釋

甲骨文이 發見되어 오늘날 까지 70 餘年問에 文字의 考釋에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 字典類를 참고로 들면 다음과 같다.

全體 甲骨片數(約 10 萬片)가 正確할 수가 없어서 單字의 統計도 不一致하다.

董作賓： 3,000 字(不超過)

陳夢家： 3,000~3,500 字 左右

胡厚宣： 5~6000 字(不正確)

金祥恒： 2,633 字

李孝定： 3,320 字

大略 3,000 字 左右임을 알 수 있다. 다음 字典類를 列記하면 다음과 같다.

著者	書名	識字	年代
劉 鶚	鐵雲藏龜	約 19 字(干支字)	1903
孫詒讓	契文舉例	約 180	1904
羅振玉	增訂殷虛書契考釋	570	1927
王 襄	簠室殷契類纂	873	(甲骨字典類의 最初書) 1920
商承祚	殷虛文字類編	789	1923
朱芳圃	甲骨學文字編	956	(待考) (合)
孫海波	甲骨文編	1,006	1,112 2,118 1944
金祥恒	續甲骨文	1,048	1,585 2,633 1959
李孝定	甲骨文集釋	王文 1,062	1,440 3,320 1965
		重文 75	
		存疑 136	
		說文所無 567	

以上の文字考釋은 完全한 것은 아니며 아직도 많은 問題點들이 있다. 各者의 主張과 異說이 紛紛한 글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다.

4. 甲骨文의 史料性

오늘날 中國의 上古史 資料를 論함에는 으레히 두가지로 區分하고 있으니 하나는 典籍에 記載된 紙上資料와 또 하나는 考古學發掘로 얻은 實物資料인 것이다. 前者를 間接史料 後者를 直接史料라고 하기도 한다. 그 名稱이 如何하건 오늘날 古代文化를 研究하자면 自然 이 두가지 史料를 모두 重視하고 相互補充과 修正을 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에서 考古工作이 活潑하지 못하였던 過去에는 다만 傳來되어 온 紙上史料(典籍)에 依據하여 古代의 文化를 探討 考究한 것이다. 그래서 春秋戰國時代만 하여도 孔子는 史料의 不足을 論하였으니 「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²²⁾라 하여 오직 文獻에 依하여 前代文化를 考究하였고 그 것도 不足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紙上史料에는 後人들이 假說이나 虛荒한 說들을 加하여 그 信憑性이 極히 疑心되는 것이 많아 온 것이다. 近代에 와서 實物史料들이 地下에서 많이 出土되자 一時의 風潮로 上古文化에 관한 紙上史料를 不信하는 傾向이 濃厚하여 疑古派들의 極端的인 面도 있었다⁽²³⁾. 그후 實證史料를 中心으로 過去의 紙上史料의 缺陷을 修正補充하여 未知의 上古文化에 대한 새로운 理解를 갖게 되었다. 지금은 이 두가지 史料를 모두 重視하여 相互 補充하는 方法으로 史料들을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殷代의 直接史料인 甲骨文은 確實히 그 어느 史料보다 文字가 記錄되

(22) 論語：八佾編.

(23) 顧頡剛主編：古史辨, 1927

어 있는 점에서 中國上古史 研究에 있어 第一가는 史料인 것이다. 그러나 이 甲骨文도 殷代의 文化를 全部 代表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理由는 甲骨文은 殷代王室을 中心한 宗教的인 信仰生活에 쓰여진 局限된 一部の 記錄이며 더욱 盤庚이 遷殷하여 270 餘年間의 記錄文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存하는 從來의 典籍에 比하여 본다면 다시 없는 貴重한 史料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史料를 活用하여 中國上古文化를 理解하고 그 文化의 發展過程을 研究하는 것이 오늘의 問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甲骨文 資料를 利用하여 中國古代文化를 探索하는데 많은 成果를 얻고 있다. 그 結果 古代 東洋社會의 文化를 엿볼수 있고 그 文化의 流傳을 생각할 수 있어 이러한 점들이 우리의 古代文化를 理解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甲骨文을 利用하여 中國上古代의 文化를 理解 하는데 몇가지 問題點들을 解決하고 提示를 하였으니 이제 이러한 점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① 朝代名稱의 確立

中國上古時代に 있어 朝代之 名稱은 後代之 記錄에 劃一性이 없었다. 그러나 甲骨文資料로 研究한 結果 朝代, 系譜, 時代等 세가지 점에 새로운 見解들을 얻게 된 것이다.

朝代之 名稱은 漢代 司馬遷의 史記에 “殷”이라 한 것으로 殷本紀는 바로 이 殷代之 歷史를 記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商”이라 부른 경우는 史記보다 먼저 古本竹書紀年에 記錄되어 있고 今本竹書紀年에는 “殷商”이라 稱하고 있다. 그러나 甲骨文에는 “殷”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다만 “大邑商”이란 말이 보이니 이것은 확실히 盤庚이 遷殷 한 이후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商”을 自己自身들의 극가로 稱하였던 것이며 “殷”이란 商代에 外地人에 대하여 부르던 稱號로 그때 最後의 首都인 地名을 殷

이라 불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尙書 盤庚篇의 記載에 遠方人들이 그들의 首都가 있는 地名을 그 당시의 朝代名으로 불렀던 것과 같은 것이다⁽²⁴⁾. 周初의 詩인 詩經에는 항상 “殷商”이라 썼으니 이것은 盤庚以後의 商朝人을 指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商, 殷, 殷商”의 세가지 意義가 差異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② 王室의 系譜.

商代 全體 王의 系譜를 甲骨文에서 찾아 본다면 그 資料가 아주 豊富하다. 이는 先王을 祭祀하는 卜辭에 몇 代의 王名들이 차례로 記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新資料에 비하여 一千年以後에 司馬遷이 按排한 殷王들의 系譜에는 얼마간의 修正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王國維先生으로부터 始作하여 많은 사람들이 史記 殷本紀의 王의 系譜를 詳細하게 校訂을 하였다. 特히 董作賓先生은 그의 「甲骨學五十年」에서 이 問題에 관한 總括活인 研究를 發表하고 있다. 史記 殷本紀의 世系와 卜辭에 나타난 世系를 比較하여 볼때 모두가 17世로 이 점은 誤謬가 없다고 하였다. 이런 점은 史記의 記錄을 甲骨資料를 利用하여 確證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甲骨文을 利用하여 史記의 世系를 確證시켜 주고 있음은 中國上古史 研究에 있어서 劃期的인 일인 것이다. 董先生의 研究로는 武乙時代의 且(祖)乙은 小乙이고 且(祖)丁은 武丁이고 且甲은 祖甲, 康且丁은 康丁, 武乙은 바로 武乙임을 確證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甲骨資料로 實證을 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여기서 우리는 史記의 記錄이 比較的 簡略함을 알수 있으니 이러한 理由는 그 당시에 이러한 實證資料를 活用하지 못하였던 까닭인 것이다. 그 한 例를 든다면 高宗이 鬼方을 攻伐한 內容은 史記에는 모두 실리지 않은 것이

(24) 王國維：說殷，觀堂集林 卷6

(25) 羅振玉：殷虛書契後編：甲辰卜貞：王賓求且乙且丁且甲康且丁 武乙衣亡尤？

다. 이것은 史記 以前の 典籍에는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周易과 詩經에 言及되고 있는 바이다⁽²⁶⁾. 이점에 관하여 董先生의 「武丁三譜」에 詳細한 考證을 하여 外族과의 戰爭事實을 瀝瀝히 記하고 특히 甲骨資料中 鬼方(鬼方)에 관한 條例를 180餘條나 提示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甲骨資料를 利用하여 後代 典籍의 未洽을 補充한 가장 좋은 점인 것이다.

③ 舊史料의 修正補充.

앞에서 잠간 論하였드시 殷代의 歷史를 記錄한 中國最初의 正史는 史記며 그중 殷本紀가 代表인 것이다. 이 史記의 誤謬를 修正하기 始作한 사람은 王國維先生이다⁽²⁷⁾. 商湯以前の 世系の 順序에 錯誤가 있었음을 아무도 모르고 몇 千年을 그대로 믿어 왔던 것이다. 甲骨文을 利用하여 이를 糾正 하게 되었으니 商代의 先公先王들의 祭祀에 있어 그 順序가 分明하게 記錄된 것이니 甲骨文에는 上甲, 報乙, 報丙, 報丁, 示壬, 示癸의 順序로 記錄되어 있는데 比하여 史記 殷本紀에는 微(上甲) 報丁, 報乙, 報丙, 主壬, 主癸로 되어 있다. 先王으로는 雍己가 太戊의 後이고 仲丁의 前이다. 그러나 史記에는 雍己가 太戊의 앞에 있는 것이다. 史記에 祖乙이 河亶甲의 子로 되어 있으나 祖乙은 仲丁의 子인 것이다. 그리고 帝王의 名號도 史記에는 庚丁 大丁이 있으나 甲骨文에 보면 康丁과 文武丁인 것이다. 이러한 史記 殷本紀의 誤謬는 史料의 不足으로 傳說이나 傳字의 錯誤에서 緣由된 所致인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誤謬가 近世까지 그대로 믿어지고 아무런 의심없이 學史에 影響을 주어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다.

(26) 易, 既濟爻辭: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易, 未濟爻辭: 震用伐鬼方, 三年有賞于大國. 詩, 大雅蕩. 文王曰: 咨女殷商... 內嬖于中國, 覃及鬼方...

(27) 王國維: 古史新證. 1925.

(28) 王國維: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續考, 觀堂集林 卷9
董作賓: 前揭書 p. 73—74

다음 史記 以外の 尙書에서 誤謬를 찾아 본다면 :

尙書 高宗彤日篇은 高宗이 彤祭로 先公에 祭祀를 지낸 것이라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²⁹⁾. 그러나 이것은 高宗의 後人이 彤日에 高宗을 祭한 것임이 甲骨文의 彤日祭에 많이 나타 나는 것이다. 여기 高宗은 바로 武丁으로 이 篇은 祖庚이 武丁을 祭한 것이다⁽³⁰⁾.

易經의 誤謬를 例하면 :

易經의 睽卦上九爻辭에 「載鬼一車」의 鬼의 解釋을 從來로 鬼神이라 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甲骨文의 鬼字는 鬼神이 아닌 鬼方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地方이나 그 地方의 宗族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여기 鬼는 타로 鬼方人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³¹⁾.

以上 簡單히 몇가지 例를 들어 舊史料의 修正 補充에 관한 점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誤謬를 是正하는 것은 中國上古文化를 理解하는데 從來의 傳統的인 方法에서 進一步된 점이며 이러한 觀點을 늘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④ 殷禮의 理解

後代 典籍에 記載된 夏殷周 三代의 祭禮에 關하여 各各 그 特性이 있다고 하여 夏는 黑色을 崇拜하고 殷은 白色, 周는 赤色을 崇尚하였다고 믿어 왔다⁽³²⁾. 그러나 殷代 卜辭에 나타난 殷祭禮에는 이러한 特性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도 後代의 典籍과 甲骨文卜辭와의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大體로 卜辭中の 白色을 표시하는 白字는 地名, 方伯의 伯으로도 쓰였다. 白이 흰색으로 쓰인 卜辭의 例를 들

(29) 書 序：本編爲商崇祭成湯。祖己作此以訓于王者。

(30) 屈萬里：尙書釋義。p. 52.

(31) 屈萬里：周易卦爻辭成於周武王時考。台大文史哲學報。第一期。1950.

(32) 禮記。檀弓上曰：「夏后氏尙黑，大事斂用昏戎事乘騶，牲用玄，殷人尙白，大事斂用日中，戎事乘翰，牲用白。周人尙赤大事乘斂用日出，戎事乘騶，牲用騂」

면 :

丙寅卜, 賓貞 : 出于且乙十白豕 ? (前 7.29.2) 로 殷人들은 白色의 犧牲으로 豕, 牛, 兕等을 썼다. 그러나 白色이 가장 尊崇되던 祭品은 아닌 것이었다. 殷人들은 黃色, 赤色等 여러가지 犧牲物을 써서 祭祀를 지냈던 것이다.

求雨更黃牛用. 又大雨 ? (粹 786).

丙寅卜, 即貞 : 羽丁卯父丁歲勿牛 ? (續 1.30.5) (勿牛는 黑色毛牛임)

丙子卜, 貞 : 康丁丁其牢, 羊 ? 效用. (前 1.26.7) (羊는 赤色牲임)

以上の 簡單한 例에서 殷人들이 祭物로 여러가지 色을 썼음을 알수 있고 甲骨文에는 이러한 例들이 많이 있다. 이로 보아 殷人들이 犧牲物로 白色만을 尊崇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三禮中 三代의 禮法에 關하여 殷禮에 關한 記錄中에는 많은 錯誤를 보이고 있다. 卽 周禮 禮記의 記錄에 燎祭란 꼭 天神에게만 지내는 祭로 여겼으나 甲骨資料에는 燎祭는 天神, 山神, 先祖를 祭하는데도 運用된 祭祀였음을 알 수 있다.

甲巳卜, 古 : 寮于夔 ? (續 1.1.1)

／寮于夔／宰 ? 十口月. (前 6.18.4)

그리고 祭祀에 所用되는 犧牲物로 大牢와 小牢가 있으니 殷代에는 이 두가지가 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後代의 記錄에는 다른 점이 있다. 甲骨文의 牢는 두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牢이고 또 하나는 宰이다. 大牢는 牢이고 小牢는 宰인 것이다. 이 牢는 두마리의 소를 희생물로 쓴 것이고 小牢는 두마리의 羊을 쓴 것이다⁽³³⁾.

⑤ 甲骨文 利用의 몇가지 問題點

甲骨文을 利用하여 中國上古文化를 理解하는데 注意할 점들이 있으니

(33) 黃然偉 : 殷禮考實. p. 26. 1967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甲骨資料를 利用하여 우리는 商代의 世系를 名確히 認識하게 되었다. 그러나 上甲(微)以前의 先公先王에 대하여서는 아직 未知한 形便이다. 이들의 廟號는 없고 다만 名稱만 보이니 이러한 이름이 무엇을 뜻하고 代表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는 앞으로 더욱 研究할만한 問題들인 것이다. 이것은 商以前의 歷史를 아는데 가장 重要한 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甲骨文에 나타난 人名들을 中心으로 어떻게 이러한 名稱들이 주어진 것인가 이런 점을 考察하여 古代의 姓氏와 人名을 稱하는 方法을 對比시켜 볼 만한 것이다.

武丁時의 甲骨卜辭에 나타난 人名들은 그 地方이나 宗族을 代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점은 그들의 習慣에 의한 하나의 社會的인 制度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 河, 羔, 微, 咸, 唐, 蚩目 등이 人名으로 그들의 地域이나 (方國) 宗族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我來十 (乙編. 5228)

我絜千 (乙編. 6967)

畫來州 (乙編. 744)

喜入五 (乙編. 4597)

여기 “我”는 方國이나 人名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例는 卜辭중 많으며 또한 이들은 方國만이 아니고 그 地域의 首令인 경우가 많다.

亘入十. (乙編. 3451)

亘入二. (乙編. 2204)

여기 亘은 貞人으로 亘方의 首令이며 王室에 入貢한 것을 記錄한 것이다.

辛卯卜, 貞 : (方) 不出于唐? (錄 705)

方其出于唐? (乙編. 2924)

여기 唐은 한 地名이며 大乙의 封地였고 大乙을 唐이라 稱하였음을 알 수 있다.

癸酉卜, 羔貞: 出來自西? 八月. (丙編. 上. 87) 여기 羔는 貞人으로 人名이다. 그러나 地名으로 쓰인 것도 있으니:

貞: 勿史人于羔? (鐵. 23. 1) 여기 羔는 地名이다.

卜辭中에 貞人들은 그들과 同名의 方國에 采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殷代의 地名과 그 地方의 首長의 이름과는 아주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卜辭中에 나타난 글자가 人名인가 地名인가 族名인가 다른 名詞인가 하는 점은 把握하기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또한 官名도 있으니 各別한 注意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殷代에는 封建體制로 伯, 侯, 子의 官名이 있었던 것이다⁽³⁴⁾.

5. 甲骨文을 통해 본 殷文化瞥見 (結言을 兼하여)

甲骨文은 殷代 王室中心의 專有物로 주로 信仰生活을 記錄한 卜辭가 大部分이고 그 중에서도 祭祀에 關한 記錄이 그 主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甲骨文을 通하여 殷代의 一般文化를 淺測할 수 있으니 그동안 많은 研究의 結果로 3千餘年前의 中國 上古時代 文化의 興味있는 一面을 볼 수 있는 것이다.

① 殷代는 國王을 中心으로 한 하나의 封建體制를 維持하였고 世系는 上甲以下 37人으로 17世로 그 配偶의 이름도 보인다. 그리고 王位의 繼承은 父子, 兄弟의 兩種繼承法을 썼고 康丁以後에는 오직 繼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殉葬制度가 있었던 것이다. 官制는 不明確하나 國王을 中心으로 各地方의 方伯, 諸侯들이 있어 統治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朝

(34) 張秉權: 甲骨文資料在古史研上的 應用問題. 新時代 第4卷 7期 1964.

貢關係가 있었고 婚姻도 하였고 때로는 敵對關係가 있어 征伐도 하였던 것이다. 그 예를 들면

隹王來征孟方伯炎. (後上. 1, 8, 6)

이것은 孟方의 方伯인 炎을 征伐한 기록인 것이다.

雀入二百五十(乙編. 7123)

亘入十 (乙編. 3451)

이것은 方國의 諸侯가 入貢한 것을 記錄한 것이다.

官의 名稱으로는 正, 小臣, 藉臣, 馬, 亞, 射, 衛, 犬, 尹, 作冊, 卜工, 史, 等이 있고 그때 諸侯들로는 伯, 侯, 田等이 있었던 것이다.

② 殷代의 方國의 數와 크기는 不明確하나 殷王들의 踪跡과 都邑 등으로 보아 지금 河南以東, 河北省南, 江蘇, 安徽의 北部 정도였다고 보며 그당시 交通은 많이 發達되어 있어서 (남쪽으로 마레이시아 북쪽으로 오소리 지방) 內外로 연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方國의 數는 約 30 餘個國이 넘는다고 본다. 그리고 首都인 中商을 中心하여 東土, 西土, 南土, 北土의 五方이 있었던 것이다.

③ 殷代의 戰爭은 武丁, 帝乙, 帝辛時代에 가장 많았고 그 규모도 굉장히 커서 出征하는 人員이 五千人이나 되었고 敵을 殺伐한 수가 2千人的 記錄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戰車, 馬 등을 戰爭에 썼던 것이다.

④ 殷代는 父系社會로 男子의 權限이 컸었다. 王后가 生男하면 “嘉”라 하였고 生女하면 “不嘉”라 하였던 것이다. 王后는 하나였으나 妃嬪은 많았던 것이다.

⑤ 殷代는 農業社會로 甲骨文에 보이는 穀物로는 稻, 黍, 禾(小米)麥 등이 있었고 蠶絲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祭祀에는 酒를 썼던 것이다.

⑥ 殷人들은 貨幣로 貝를 썼고 그 單位는 十進法을 썼던 것이다.

丁亥卜, 光取貝二朋, 在正月, 取, (侯 27).

⑦ 殷人들의 祭祀는 융숭하고 번다하였으니 그들이 祭하는 神은 天, 地, 人을 同時에 尊崇하였다. 自然神으로 上帝, 社, 日, 風, 雲, 雨, 雪, 岳(太岳), 河(黃河) 其他 山川 등에 祭하고 祖上에 祭하였으니 祭祀는 彡, 翬, 祭, 賞, 罍의 五種이 있었고 犧牲物의 色과 數는 問卜을 하여 決定하였다. 祭祀에는 사람을 犧牲으로 쓴 것이 있다. 그때 羌人들을 많이 犧牲物로 쓴 것이다. 占卜이 盛하고 發達된 것도 殷人들이 自然과 祖上에 대한 祈願에서 우려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⑧ 殷人들의 曆法은 상당히 發達된 것이니 그들은 天文에 관한 발달된 지식이 있었다. 이는 農業社會를 營爲하자면 四季의 變化에 많은 주의를 하게 되어 이점에 일찍 주의를 기울인 것이라 보겠다. 殷人들은 紀日法으로 干支를 썼고 六十甲子로 名稱을 삼고 60日을 一週로 하였다. 十日을 一旬으로 하고 十旬이면 百日이라 하다. 月法은 大小月이 있고 月은 30日 小月을 29日로 하고 太陰日(陰曆)을 中心하고 閏月을 두었으니 처음에는 年末에 두어 十三月이라 하였다가 후에 개정하여 해당되는 달에 두었다. 이러한 曆法은 殷人들이 氣節을 月建의 標準으로 삼아 干支의 丑을 正月(一月)로 삼고 干支紀日法을 써온 것이다.

⑨ 殷代 使用된 甲骨文字는 後世 文字理論인 六書의 條件을 갖추고 있었고 形聲字 發興 段階로 假借方法이 많았음이 特徵이다. 그리고 이미 毛筆을 使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殷代文化를 甲骨文을 通하여 簡單히 그 情形을 본 것이다. 其外에도 銅器 其他의 實證資料들을 通하여 殷代文化의 探究가 많은 成果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三千餘年前 東洋의 人類가 農業社會를 營爲하고 發展되는 文字를 使用하며 훌륭한 文化를 形成하는 段階를 찾아 볼 수 있음은 多幸한 일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上古문화도 이에 비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바이다.